

우리말 불교용어와 『한국한자어사전』의 불교용어 증보 방향에 대하여 — 향가, 이두, 구결을 중심으로 —

金 星 周*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한자어사전』을 증보할 때, 차자표기 자료에서 우리말 불교용어를 증보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 논문의 대상은 차자표기 자료 중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향가, 이두, 구결 자료이며, 고유명사 표기를 제외하였다. 『한국한자어사전』에서는 향가 자료를 제외한 이두와 구결 자료는 한국한자어 용어 선정의 대상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한국한자어사전』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 자료 중 ‘葛項寺石塔記’, ‘蓮池寺鐘銘’, ‘大明律直解’, ‘通度寺國長生石標’,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등 5개의 자료만 용어 선정 대상으로 이용하였을 뿐이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한자어사전』을 증보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라와 고려의 차자자료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반면 여기에 쓰인 우리말 불교용어는 우리말 체계에서 오래 전부터 정착된 불교용어들이기 때문에 모두 표제어로 선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차자표기 자료에서 우리말 불교용어를 선정할 때 향가·이두와 구결 자료는 분리하여 생각하여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문자 체계이므로 거기에 쓰인 불교용어는 우리말 불교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일반적으로 한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문자 체계이므로 구결문에 쓰인 불교용어가 바로 우리말 불교용어라고 하기 어렵다. 불교용어의 선정은 기존의 불교사전의 표제어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결문에 쓰인 불교용어를 우리말 불교용어임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중세국어 언해문에 쓰인 ‘NP+ㅎ’ 동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증보 한국한자어사전, 우리말 불교용어, 향가, 이두, 구결, ‘NP+ㅎ’ 동사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구결의 불교용어 |
| II. 향가·이두의 불교용어 | IV. 결 론 |

* 동국대학교 초빙교수 / sutra01@daum.net

I. 서 론

이 글은 『한국한자어사전』의 불교용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할 때 차자자료에서 사용된 우리말 불교용어¹⁾를 보충하는 방법과 방향을 논의한 글이다. 이 글의 대상이 불교용어인 관계로 고유명사 표기는 이 글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차자표기 자료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향가, 이두, 구결이다. 향가, 이두, 구결 중 향가와 이두는 우리말 표기에 이용된 것이고 구결은 기본적으로 한문을 쉽게 읽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²⁾

이런 이유로 차자표기에 사용된 우리말 불교용어와 이를 통한 『한국한자어사전』의 우리말 불교용어 보충을 논하기 위해서는 향가·이두와 구결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향가·이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차자표기 자료이므로 여기에 사용된 불교용어는 우리말 불교용어일 가능성이 높지만, 구결은 한문을 쉽게 읽게 위해 사용된 차자표기이므로 구결문에 사용된 불교용어는 기본적으로 한문에서 사용된 불교용어이지 우리말 체계에서 사용된 불교용어는 아니다.

차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한자어사전』의 불교용어를 보완하는 방법은 먼저 기존의 『한국한자어사전』에서 사용된 차자자료와 거기에 실린 불교용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박찬규(2012)의 논의를 참조하면 『한국한자어사전』에 사용된 차자표기 자료는 이두, 구결, 고유명사 자료를 망라하여 227종이다.³⁾ 그런데 사용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한자어사전』에서 향가는 자료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두와 구결의 경우에도 신라시대의 것은 ‘葛項寺石塔記’, ‘蓮池寺鐘銘’ 등 2개이고, 고려시대 것을 포함하더라도 ‘大明律直解’, ‘通度寺國長生石標’,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등 3개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차자 자료는 단지 5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한국한자어사전』에 이용된 차자 자료가 조선시대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 향가·이두의 불교용어

향가와 이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사용된 차자표기이다. 잘 알려진 대로 향가는 신라나 고려 사람이 자신들의 노래를 적은 차자표기이고, 이두는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조성기, 조상기, 발원문 등을 적은 차자표기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향가와 이두를 동일한 성질의 자료로 보고 이들을 같은 문맥에서 논의한다.

향가나 이두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판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향가는 『삼국유사』나 『균여전』에 실려 있으므로 2차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두는 금석문에 남아 있는 경우와 문헌에 전해지는 경우

-
- 1) 이 글에서는 우리말의 체계 안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불교용어를 ‘우리말 불교용어’라 부른다.
 - 2) 『두시언해』의 주석문을 보면 구결문도 우리말의 표기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결문의 이러한 용법이 구결문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3) 박찬규, 「『한국한자어사전』에 수용된 이두·구결·차자어의 구성과 출전문헌」, 『동양학』 52, 용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2의 ‘부록’ 참조.

가 있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신라나 고려시대 차자표기 자료들은 주로 금석문 자료가 많기 때문에 판독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삼국유사』나 『균여전』 등 문헌에 실려 있는 향가의 경우에도 판독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균여전』을 예로 들면 지금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균여전』은 동국대학교에서 1950년대에 영인한 영인본 고려 재조대장경이 보유편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영인된 균여 향가 중 ‘稱讚如來歌’에는 ‘閻王’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閻王’은 小倉進平과 양주동은 물론 최근의 김완진과 유창돈에 이르기까지 모든 향가 연구자를 곤란하게 만든 용어이었다. 사용된 문맥을 보면 불교용어인 듯이 보이지만 정작 어떤 불교 문헌이나 불교사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池炯律(2009)과 안정희(2010)의 연구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두 논의에서는 지금까지 ‘王’자로 읽어온 ‘閻王’의 ‘王’이 사실은 ‘毛’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毛’의 아래 획이 탈각되었기 때문에 영인본에서는 ‘王’자로 보인 것이다. 이 구절은 ‘閻王’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閻毛冬留’로 읽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閻王’을 해석하기 위해서 小倉進平 이래로 최근의 향가 연구자들까지 제시한 모든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불교용어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閻王’을 ‘부처’ 자체로 해석한다든가, 부처와 보살의 중간적인 위치로 본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차자자료를 이용해서 불교용어를 정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신라시대 이두 자료 전부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와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記를 살펴보았다. 전자는 권10과 권50의 권말에 비슷한 내용의 造成記 2개가 있는 자료이며, 후자는 지리산 중턱의 비로자나석불의 대좌의 사리공에 있던 蠟石製舍利盒의 몸통과 밑면에 새겨진 것으로 몸통에 새겨진 이두는 판독이 용이하지만 밑면에 새겨진 이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향가는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와, 『균여전』에 실린 향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유사 향가, 후자를 균여 향가라 한다. 유사 향가 14수는 균여 향가 11수에 비해 주제가 다양하다. 균여 향가는 40권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토대로 균여 스님이 중생들을 위해 부른 노래이다. 이 노래에는 화엄 사상이 일관되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복합 적인 성격을 가진 유사 향가에 비해 불교용어를 논의하기가 용이하므로 이 글에서는 균여 향가를 연구 대상으로 다룬다.

균여 향가의 정식 이름은 ‘普賢十種願王歌’이다. 먼저 ‘普賢十種願王歌’의 전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가. <01禮敬諸佛歌> 心末筆留 / 慕呂白乎隱佛體前衣 / 拜內乎隱身萬隱 / 法界毛叱所只至去良 / 塵塵馬洛佛體叱利亦 / 刹刹每如邈里白乎隱 / 法界滿賜隱佛體 / 九世盡良禮爲白齊 / 歎曰 身語意業無疲厭 / 此良夫作沙毛叱等耶
- 나. <02稱讚如來歌> 今日部伊冬衣 / 南無佛也白孫舌良衣 / 無盡辯才叱海等 / 一念惡中涌出去良 / 塵塵虛物叱邊呂白乎隱 /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 際于萬隱德海盼 / 閻毛冬留讚伊白制 / 隔句 必只一毛叱德置 / 毛等盡良白乎隱乃兮
- 다. <03廣修洪養歌> 火條執音馬 / 佛前燈乙直體良爲多依 / 燈炷隱須彌也 / 燈油隱大海逸留去

- 耶 / 手焉法界毛叱色只爲彌 / 手良每如法叱供乙留 / 法界滿賜仁佛體 / 佛佛周物叱供爲白制 / 阿耶法供沙叱多奈 / 伊於依波最勝供也
- 라. <04懺悔業障歌> 顛倒逸耶 / 菩提向焉道乙迷波 / 造將來臥乎隱惡寸隱 / 法界餘玉只出隱伊音叱如支 / 惡寸習落臥乎隱三業 /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 / 今日部頓部叱懺悔 / 十方叱佛體闕遣只賜立 / 落句 衆生界盡我懺盡 / 來際永良造物捨齊
- 마. <05隨喜功德歌> 迷悟同體叱 / 緣起叱理良尋只見根 / 佛伊衆生毛叱所只 / 吾衣身不喻仁人音有叱下呂 /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 / 得賜伊馬落人米無叱昆 / 於內人衣善陵等沙 / 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 / 後言 伊羅擬可行等 / 嫉妬叱心音至刀來去
- 바. <06請轉法輪歌> 彼仍反隱 / 法界惡之叱佛會阿希 / 吾焉頓叱進良只 / 法雨乙乞白乎叱等耶 / 無明土深以埋多 / 煩惱熱留煎將來出米 / 善芽毛冬長乙隱 / 衆生叱田乙潤只沙音也 / 後言 菩提叱菓音烏乙反隱 / 覺月明斤秋察羅波處也
- 사. <07請佛往世歌> 皆佛體 / 必于化緣盡動賜隱乃 / 手乙寶非鳴良尔 / 世呂中止以友白乎等耶 / 曉留朝于萬夜未 / 向屋賜尸朋知良闔戶也 / 伊知皆矣爲米 / 道尸迷反群良哀呂舌 / 樂句 吾里心音水清等 / 佛影不冬應爲賜下呂
- 아. <08常隨佛學歌> 我佛體 / 皆往焉世呂修將來賜留隱 / 難行苦行叱願乙 / 吾焉頓部叱逐好友伊音叱多 / 身靡只碎良只塵伊去米 / 命乙施好尸歲史中置 / 然叱皆好尸下下里 / 皆佛體置然叱爲賜隱伊留兮 / 城上人 佛道向隱心下 / 他道不冬斜良只行齊
- 자. <09恒順衆生歌> 覺樹王焉 / 迷火隱乙根中沙音逸良 / 大悲叱水留潤良只 / 不冬萎玉內乎留叱等耶 / 法界居得丘物叱丘物叱 / 爲乙吾置同生同死 / 念念相續無間斷 / 佛體爲尸如敬叱好叱等耶 / 打心 衆生安爲飛等 / 佛體頓叱喜賜以留也
- 차. <10普皆廻向歌> 皆吾衣修孫 /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 / 衆生叱海惡中 / 迷反群无史悟內去齊 / 佛體叱海等成留焉日尸恨 / 懺爲如乎仁惡寸業置 / 法性叱宅阿叱寶良 / 舊留然叱爲事置耶 / 病吟 禮爲白孫佛體刀 /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
- 카. <11總結無盡歌> 生界盡尸等隱 / 吾衣願盡尸日置仁伊而也 / 衆生邊衣于音毛 / 際毛冬留願海伊過 / 此如趣可伊羅行根 / 向乎仁所留善陵道也 / 伊波普賢行願 / 又都佛體叱事伊置耶 / 阿耶 普賢叱心音阿于波 / 伊留叱餘音良他事捨齊

차자표기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한자어사전』의 불교용어를 보완하는 작업에서는 원문 텍스트에서 불교 용어를 뽑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普賢十種願王歌’에서 불교용어를 선정하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무엇을 불교용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존의 불교사전을⁴⁾ 이용하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불교용어인지 아닌지 판단을 요하는 어휘를 기존의 불교사전에서 찾아보고 이 어휘가 기존 사전에서 표제어로 등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기존 불교사전에서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으면서 불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어휘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4) 『(望月)佛光大辭典』, 『佛光大辭典』, 『(伽山)佛光大辭林』 등을 말한다.

- (2) 覺月, 苦行, 功德, 九世, 難行, 南無佛, 來際, 念念, 德海, 道, 同體, 緣起, 無明土, 迷悟, 煩惱, 辯才, 法界(7), 法性, 法雨, 法供, 菩提(2), 普賢, 普賢行願, 佛, 佛道, 佛影, 佛體(13), 佛會, 三業, 相續, 須彌, 身語意業, 十方, 業, 願(2), 願海, 顛倒, 淨戒, 衆生(5), 衆生界, 懺悔, 化緣⁵⁾

(2)는 균여 향가 11수 중에서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어휘들을 모두 뽑은 것이다. 중복된 것을 제외한 불교용어는 총 47개로서 이 중 중복된 불교용어는 ‘法界 7번, 菩提 2번, 佛體 13번, 願 2번, 衆生 5번’이다.

- (3) 苦行, 功德, 九世, 難行, 南無佛, 念念, 道, 緣起, 迷悟, 煩惱, 法界, 法性, 法雨, 菩提, 普賢, 佛, 佛道, 佛會, 辯才, 三業, 相續, 十方, 業, 願, 願海, 顛倒, 淨戒, 衆生, 衆生界, 懺悔, 化緣

(3)은 균여 향가에서 불교 색채를 지닌 어휘 중 기존 불교사전에서 표제어로 쓰인 것들이다.⁶⁾ (3)에 제시된 어휘들은 불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불교사전에서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한국한자어사전』의 표제어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불교와 관련되면서도 기존의 불교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은 (4)에 제시된 어휘들이다.

- (4) 가. 覺月, 德海, 無明土, 佛影
 나. 來際, 同體, 法供, 須彌, 身語意業
 다. 普賢行願
 라. 佛體,

(4)는 균여 향가에서 불교와 관련된 어휘로 볼 수 있지만 기존 불교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는 어휘들이다. 이들은 다시 (4가)와 같이 원래 불교용어인 ‘覺, 德, 無明, 佛’에 ‘月, 海, 土, 影’이 붙어 문학성이 가미된 어휘들이다. ‘普賢十種願王歌’는 본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불교용어를 그대로 詩語로 사용하지 않고 ‘달(月), 바다(海), 흙(土), 그림자(影)’ 등에 비유하여 표현한 어휘들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4가)의 ‘覺月, 德海, 無明土, 佛影’은 ‘覺, 德, 無明, 佛’과 동일한 것이며, 이들은 모두 기존의 불교사전에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용어로 간주해야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4가)의 어휘들은 차자표기의 특수한 예들로서 『한국한자어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할 것이다.⁷⁾

(4나)의 ‘來際, 同體, 法供, 須彌’는 각각 ‘未來際, 同體相入 또는 同體相卽, 法供養, 須彌山’ 등의 준말이며,

5) 괄호 속의 숫자는 출현 횟수를 말한다.

6) 이 글에서 불교용어의 검토를 위해 주로 사용한 사전은 『불광대사전』이다.

7) 불교를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에 등장하면서 문학적인 비유나 수사가 가미된 어휘들을 모두 『한국한자어사전』의 표제어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불교가사에서 이런 어휘들은 신라나 고려의 차자표기 자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어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필자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차자표기 자료는 그 수가 제한되어 희귀성이 있으므로 고려시대까지의 차자표기 자료에서 선별되는 불교용어들은 모두 『한국한자어사전』의 표제어로 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身語意業’은 ‘三業’의 본말인데, 이들은 기존의 불교사전에 모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불교용어로 간주하는 데 무리는 없다. (4다)의 ‘普賢行願’은 ‘普賢菩薩이 行하는 誓願’이라는 뜻으로 비록 불교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교용어임을 의심할 수는 없다. (4라)의 ‘佛體’는 균여 향가에서 ‘부처님’을 표기하는 용어로 무려 13회가 쓰였다. 그런데 ‘佛體’ 자체가 ‘부처님’ 즉 ‘佛’을 뜻하므로 이를 불교용어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佛體’는 ‘부처’에 대한 우리말 표기라는 점에서 더욱 중시해야 할 단어이다.⁸⁾

균여 향가를 대상으로 먼저 기존 불교 사전의 표제어와 일치하는 불교 용어를 뽑고, 그 다음으로는 불교 색채를 띤 어휘들 중 불교용어로 선정될 수 있는 어휘를 가려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라와 고려의 차자표기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한다면 차자자료를 대상으로 한 『한국한자어사전』의 불교용어 보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용어들을 『한국한자어사전』에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글은 『한국한자어사전』에서 불교용어를 증보할 때 향가, 이두, 구결 등 차자표기 자료에서도 우리말 불교용어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과 선정 방법을 보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므로 불교용어의 뜻풀이 방법에 대한 논의는 보다 전문가의 논의에 기대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한자어사전』의 기존 표제어에서 빠진 우리말 불교용어를 차자표기 자료에서 보충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한국한자어사전』은 한자어를 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자어의 첫 글자를 찾아야 하며 불교용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다. ‘佛’을 예로 들어, 『한국한자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살펴보면 아래의 (5)와 같다.⁹⁾

- (5) 佛見笑 불견소, 佛經紙 불경지, 佛谷 불곡, 佛骨筒子 불골간자, 佛供 불공, 佛國 불국, 佛國寺 불국사, 佛國寺古今歷代記 불국사고금역대기, 佛國寺多寶塔 불국사다보탑, 佛奴 불노, 佛頭骨 불두골, 佛頭金 불두금, 佛頭白 불두백, 佛頭簪 불두잠, 佛頭花 불두화, 佛狼機 불랑기, 佛朗機國 불랑기국, 佛糧 불량, 佛名經寶 불명경보, 佛廟 불묘, 佛無寺 불무사, 佛排 불배, 佛腹藏 불복장, 佛事問答 불사문답, 佛席 불석,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佛說目連經諺解 불설목련경언해, 佛說阿彌陀經諺解 불설아미타경언해, 佛疏 불소, 佛手 불수, 佛手緞 불수단, 佛氏雜辨 불씨잡변, 佛牙函 불야함, 佛巖寺 불암사, 佛巖山 불암산, 佛影寺 불영사, 佛胃 불위, 佛恩寺 불은사, 佛日普照 불일보조, 佛齋都監 불재도감, 佛齋日 불재일, 佛底刮麻毛發 불저갈마모발, 佛底麻去兀露 불저마거울로, 佛賊 불적, 佛丁 불정, 佛頂寺 불정사, 佛頂花 불정화, 佛祖源流 불조원류, 佛祖宗派之圖 불조종파지도, 佛天 불천, 佛卓 불탁, 佛幘 불탱, 佛退 불퇴, 佛汗 불한, 佛婚 불혼, 佛火 불화

8) 이선이(태경)(2010)에서는 균여 향가의 ‘佛體’를 ‘法(dharma)과 衆生과 나를 모두 포함하는 融三世間的 佛’로 보았다. 이 관점은 ‘佛體’를 ‘부처’와 동일하게 보는 이 글의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균여 향가의 ‘佛體’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불교 용어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9) 한자어의 배열은 『한국한자어사전』의 방식과 같이 ‘한자 한글’로 표시하였다.

균여 향가에서 ‘佛’로 시작하는 불교용어는 ‘佛, 佛道, 佛影, 佛體(13), 佛會’가 있는데 이들 중 『한국한자어사전』에 한자어로 실려 있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박찬규(20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균여의 ‘普賢十種願王歌’는 『한국한자어사전』에서 작업한 차자표기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

그런데 차자표기 자료에서 선정된 불교용어는 『한국한자어사전』에 전부 한자어로 실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필자는 적어도 신라와 고려시대 차자표기 자료에 실린 우리말 불교용어는 전부 신는 방향으로 『한국한자어사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라와 고려시대 차자표기 자료는 그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실린 우리말 불교용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표제어의 수를 지나치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대가 앞서는 우리말 불교용어가 그렇게 많이 확인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차자표기 자료에 실린 우리말 불교용어는 『한국한자어사전』에 모두 신는 방향으로 증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한국한자어사전』에 한자어로 실려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신라나 고려시대 차자표기에 나오는 우리말 불교용어는 그 용례를 불교용어의 뜻풀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¹⁰⁾

다음으로는 이두 자료에 실린 우리말 불교용어를 검토해 보자. 이 글에서는 신라시대 이두 자료로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년)와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記(766년)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한국한자어사전』에서 이용한 차자표기 자료는 아니다.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와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記의 전문과 여기에 실린 우리말 불교용어를 뽑아 보면 각각 (6~9)와 같다.¹¹⁾

- (6) 天寶十三載甲午八月一日初乙未載二月十四日一部周了成內之成內願旨者皇龍寺緣起法師爲內賜第一恩賜父願爲爲內彌第二法界一切衆生皆成佛欲爲賜以成賜乎經之成內法者楮根中香水散尔生長令內彌然後中若楮皮脫那脫皮練那紙作伯士那經寫筆師那經心匠那佛菩薩像筆師走使人那菩薩戒授令彌齊食彌右諸人等若大小便爲哉若臥宿哉若食喫哉爲者香水用尔沐浴令只但作處中進在之經寫時中竝淳淨爲內新淨衣襪水衣臂衣冠天冠等庄嚴令只者二青衣童子灌頂針捧彌又青衣童子着四伎樂人等竝伎樂爲彌又一人香水行道中散彌又一人花捧行道中散彌又一法師香爐捧引彌又一法師梵唄唱引彌諸筆師等各香捧尔右念行道爲作處中至者三歸依尔三反頂禮爲內佛菩薩華嚴經等供養爲內以後中坐中昇經寫在如經心作彌佛菩薩像作時中青衣童子伎樂人等除余淳淨法者上同之經心內中一收舍利尔入內如我今誓願盡未來所成經典不爛壞假使三灾破大千此經與空不散破若有衆生於此經見佛聞經敬舍利發菩提心不退轉修普賢因速成佛成檀越新羅國京師順口紙作人仇叱珍兮縣黃珍知奈麻經筆師武珍伊州阿干奈麻異純大舍今毛大舍義七韓舍孝赤沙弥南原京文英沙弥卽曉韓舍高沙夫里郡陽純奈麻仁年韓舍屎烏韓舍仁節韓舍經心匠大京能吉奈麻于古奈麻佛菩薩像筆師同京義本韓舍麻丁得奈麻先得舍知豆烏舍經題筆師同京同智韓舍六頭品父吉得阿食 (권10의 조성기)
- (7) 經, 經師, 經寫筆師, 經心匠(2), 經典, 經題筆師, 經筆師, 灌頂針, 檀越, 梵唄, 法界, 法師(2), 菩薩戒, 菩提心, 普賢, 不退轉, 佛菩薩, 佛菩薩像(2), 佛菩薩像筆師, 舍利(2), 三歸依, 三災, 成佛(2), 緣起法師, 頂禮, 衆生(2), 青衣童子(3), 筆師(2), 香爐, 香水(2), 香水行道, 香花, 華嚴經, 皇

10)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記’에 실린 ‘過去’ 항목을 참조할 것.

11)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記는 舍利盒의 몸통과 밑면에 새겨져 있으므로 (8가)와 (8나)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며, 이두문의 판독은 남풍현(1988), 김성주·박용식(2015)의 것을 이용하였다. 특히 舍利盒 밑면의 판독은 후자의 것을 받아들였다.

龍寺,

- (8) 가.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 釋法勝法緣二僧并 / 內 奉過去为飞又易 豆溫哀 / 郎願为石毗盧遮那佛 / 成內無垢淨光陀羅尼并 / 石南巖藪觀音巖中 / 在內如 願請內者豆溫 / 愛郎靈神又易 那二僧 卍 那 / 若見內人那向尔頂礼为那 / 遙聞內那随喜为內那 / 影中逕類那吹尔逕風 / 逕所方處一切衆生那一切 / 皆三惡道業滅尔自毗盧 / 遮那是 卍 覺去世为尔誓 / 內之
나. 內物是在之 / 此者思 卍 恒性为 / 一二个反藥者大 / 弘病一無为趣 卍

- (9) 觀音巖(造像記), 無垢淨光陀羅尼(造像記), 毗盧遮那(造像記), 三惡道業(造像記), 石南巖藪(造像記), 石毗盧遮那佛(造像記), 随喜(造像記), 靈神(造像記), 頂禮(造像記), 衆生(造像記)

(6)과 (8)은 각각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와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記의 전문이고, (7)과 (9)는 각각 이들에 실린 우리말 불교용어를 제시한 것이다.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에는 모두 34개의 우리말 불교용어를 얻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중복된 불교용어는 經心匠(2), 法師(2), 佛菩薩像(2), 舍利(2), 成佛(2), 衆生(2), 青衣童子(3), 筆師(2), 香水(2) 등 모두 9개이다.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記에 실린 우리말 불교용어를 뽑아 보면 (9)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10개의 우리말 불교용어를 얻을 수 있다. 이들 두 개의 이두 자료에서 뽑을 수 있는 우리말 불교용어 개수는 42개이며 이 중 중복된 불교용어 개수는 9개이다. 아래의 (10)은 두 개의 이두 자료에서 뽑은 불교용어의 용례이다.

- (10) 經(造成記), 京師(造成記), 經寫筆師(造成記), 經心匠(2)(造成記), 經典(造成記), 經題筆師(造成記), 經筆師(造成記), 觀音巖(造像記), 灌頂針(造成記), 檀越(造成記), 無垢淨光陀羅尼(造像記), 梵唄(造成記), 法界(造成記), 法師(2)(造成記), 菩薩戒(造成記), 菩提心(造成記), 普賢(造成記), 不退轉(造成記), 佛菩薩(造成記), 佛菩薩像(2)(造成記), 佛菩薩像筆師(造成記), 毗盧遮那(造像記), 舍利(2)(造成記), 三歸依(造成記), 三惡道業(造像記), 三災(造成記), 石南巖藪(造像記), 石毗盧遮那佛(造像記), 成佛(2)(造成記), 随喜(造像記), 緣起法師(造成記), 靈神(造像記), 頂禮(2)(造像記-造成記), 衆生(3)(造成記-造像記), 青衣童子(3)(造成記), 筆師(2)(造成記), 香爐(造成記), 香水(2)(造成記), 香水行道(造成記), 香花(造成記), 華嚴經(造成記), 皇龍寺(造成記)

앞에서 차차표기 자료의 판독은 『한국한자어사전』의 불교용어 증보 작업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작업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두 자료에서도 판독의 중요성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9)에 제시된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記의 이두는 몸통에 새겨진 이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밑면에 새겨진 이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¹²⁾ 그러므로 실제 이두 자료에 나오는 불교용어를 『한국한자어사전』에 등재하거나 뜻풀이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판독 결과를 실제 이미지와 대조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12)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記의 밑면에 대한 새로운 판독에 대해서는 김성주·박용식, 「영태2년명(永泰二年銘) 석비로자나불(石毘盧遮那佛) 조상기(造像記)에 대하여」, 『배달말』 56, 배달말학회, 2015를 참조할 것.

이두 자료에서 뽑은 불교용어를 『한국한자어사전』에서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은 향가의 경우와 같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Ⅲ. 구결의 불교용어

앞에서 향가와 이두에 쓰인 우리말 불교용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구결에 쓰인 불교용어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에서 사용한 구결자료는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 중의 하나인 『화엄경』 권14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말 표기에 쓰인 향가와 이두와는 한문을 쉽게 읽기 위해서 사용된 구결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자료이기 때문에 구결에 실린 불교용어도 향가·이두에 실린 불교용어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우선 『華嚴經』 권14에서 불교용어를 뽑는 과정부터 살펴보자. 『화엄경』 권14는 주본 화엄경(80권본)의 제14 淨行品과 제15 賢首品の 전반부를 싣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華嚴經』 권14의 구결문을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제14 淨行品 부분의 일부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주본 화엄경의 정행품은 智首菩薩의 20가지 물음과 이에 대한 대답으로 文殊菩薩의 141개의 계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 글에서는 문수보살의 계송 중 제1 계송부터 제26 계송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의 (11)은 문수보살의 제1~26 계송의 전문이다.¹³⁾

(11)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 空 免 其 逼迫 孝 順 父母 當 願 衆生 善 事 親 平等 永 離 貪 著 若 得 五 欲 當 願 衆生 拔 除 欲 箭 究 竟 安 隱 妓 樂 聚 會 當 願 衆生 以 法 自 娛 了 妓 非 實 若 在 宮 室 當 願 衆生 入 聖 地 永 除 穢 欲 著 瓔 珞 時 當 願 衆生 捨 諸 偽 飾 到 眞 實 處 上 昇 樓 閣 當 願 衆生 昇 正 法 樓 徹 見 一 切 若 有 所 施 當 願 衆生 一 切 能 捨 心 無 愛 著 衆 會 聚 集 當 願 衆生 捨 衆 聚 法 成 一 切 智 若 在 屢 難 當 願 衆生 隨 意 自 在 所 行 無 礙 居 家 時 當 願 衆生 出 家 無 礙 心 得 解 脫 入 僧 伽 藍 當 願 衆生 演 說 種 種 無 乖 諍 法 諷

13) 음독구결이 주로 한자의 오른쪽에 현토된 구결만 있는 것과는 달리 석독구결은 한자의 오른쪽에 달린 구결도 있고(우토), 왼쪽에 달린 구결(좌토)도 있다. 이 글에서는 관례에 따라 한자의 왼쪽에 달린 구결 즉 좌토에 대해서는 「」와 같이 대괄호를 이용하였다.

大小師ヲ當願衆生巧リ事ハ白ラハ師長シ習行ソモ立善法シ / 求請ソモ
 出家ノ入シ當願衆生得リホ不退法シ心ヲ無モ立障礙尸 / 脫去ソモ
 俗服シ當願衆生勤セ悵ラハ善根シ捨ソモ立諸罪七輕シ / 剃除ソモ
 鬚髮シ當願衆生永モ離支口ハ煩惱シ究竟寂滅ソモ立 / 著ソモ
 袈裟衣シ當願衆生心ヲ無ラハ所ラ染ノ具イモ立大仙ヲ道シ / 正セ出家ソモ
 時ニ當願衆生同ソラハ佛ニ出家ソモイラナ救護ソモ立一切シ / 自ノ
 歸ソモ立佛ニ當願衆生紹隆ソラハ佛種シ發ソモ立無上意シ / 自ノ歸
 法ニ當願衆生深入ソラハ經藏ヲ智慧リ如シ海 / 自
 僧ニ當願衆生統理ノム大衆シ一切之セ無モ立礙尸 /
 受ソモ立學ソモ立戒シ時ニ當願衆生善支學ソラハ佛戒シ不モ立作
 衆ヲ惡シ / 受モ立閻梨教シ當願衆生具足ソラハ威儀シ所行眞實ソモ
 立 / 受モ立和尙ヲ教シ當願衆生入ソラハ無生智ヲ到モ立無依處ヲ /
 受モ立具足戒シ當願衆生具イホ諸ヲ方便シ得モ立最勝法シ

(11)에서 불교 관련 어휘를 뽑으면 아래의 (12)와 같이 모두 38개의 어휘를 얻을 수 있다.¹⁴⁾ 이 중에서 불교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를 가리면 각각 (12~14)와 같다.

- (12) 袈裟衣, 經藏, 戒, 空ノ-, 具足戒, 大小師, 道, 無上意, 無生智, 煩惱, 法, 菩薩, 佛, 佛種, 閻梨教, 善根, 善法, 僧, 僧伽藍, 愛著ノ-, 演說ソ-, 穢欲, 五欲, 欲箭, 一切智, 障礙, 在家ソ-, 寂滅ソ-, 正法樓, 衆生, 智慧, 眞實處, 最勝法, 出家ソ-, 貪著, 平等ソ-, 解脫ノ-, 和尙
- (13) 經藏, 戒, 空ノ-, 具足戒, 道, 無生智, 煩惱, 法, 菩薩, 佛, 佛種, 善根, 善法, 愛著ノ-, 演說ソ-, 穢欲, 五欲, 欲箭, 一切智, 障礙, 在家ソ-, 寂滅ソ-, 正法樓, 衆生, 智慧, 眞實處, 出家ソ-, 貪著, 平等ソ-, 解脫ノ-, 和尙
- (14) 가. 袈裟衣, 僧伽藍, 閻梨教
 나. 大小師
 다. 無上意
 라. 僧, 最勝法

(12)는 불교 관련 어휘를 모두 뽑은 것이며, (13)은 기존의 불교사전에 표제어로 제시된 불교 관련 어휘이다. (14)는 제시된 단어의 일부 구성원이 기존의 불교사전에 표제어로 제시된 예들인데 이들 중 (14가)는 제시된 단어의 일부 요소가 불교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예들인데, ‘袈裟衣’는 ‘袈裟’가, ‘僧伽藍’은 ‘伽藍’이, ‘閻梨教’는 ‘阿闍梨’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14나)의 ‘大小師’는 ‘大師’와 ‘小師’가 각각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기

14) 이 단계는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어휘의 선정부터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佛’과 ‘佛々’를 모두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 첫 번째 계층에 쓰인 ‘在家ソ-’를 불교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에 있을 때’의 일반적인 의미로 볼 것인지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在家ソ-’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때문에 불교용어로 간주하는 데 문제가 없다. (14다)의 ‘無上意’는 뜻풀이에 나오고 (14라)의 ‘僧’과 ‘最勝法’은 자체로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僧’의 4가지 종류를 뜻하는 ‘四種僧’과 ‘最勝’을 제외한 ‘法’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12)에 제시된 단어들은 (13)과 같이 불교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14)와 같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두 불교용어로 간주할 수 있는 예들이다.

그런데 구결에 쓰인 불교용어들을 이두나 향가에서 쓰인 불교용어와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두나 향가에서 쓰인 불교용어는 이두나 향가 자체가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 체계이므로 당연히 여기에 쓰인 불교용어는 우리말 체계에 수용된 불교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결은 한문을 쉽게 해독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보조 문자이므로 구결문에 쓰인 불교용어 전부를 우리말 체계에서 사용한 불교용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결문에 쓰인 불교용어는 다시 우리말 불교용어인지 아닌지를 여과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구결에 쓰인 불교용어를 우리말 불교용어로 다루는 작업은 그 단어가 우리말 질서에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다각도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은 그 어휘의 성격, 우리말 텍스트에서의 사용 정도, 빈도수 등 따져 보아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구결에 쓰인 불교용어가 우리말 불교용어로 쓰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중세국어 자료인 간경도감판 불경 언해에 ‘NP ㅎ-’로 언해된 어휘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불경 언해에 쓰인 ‘NP ㅎ-’ 동사나 형용사들은 기본적으로 한문으로 된 불경을 당시의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불경 언해의 언해문에 쓰인 불교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말 불교용어들이라 할 수 있다.¹⁵⁾ 그것은 구결에 사용된 불교용어 중 ‘NP ㅅ-’나 ‘NP /-’로 표기된 동사들을 불경 언해에서 검색하여 그 쓰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 (15) 가. 空 /-, 寂滅 ㅅ-, 出家 ㅅ-, 平等 ㅅ-, 解脫 /-,
 나. 在家 ㅅ-,
 다. 愛著 /-, 演說 ㅅ-,

(15)는 (12)의 예 중에서 한자어 명사에 ‘ㅅ-’나 ‘/’가 현토된 것들인데, 이들이 불경 언해에서 ‘NP ㅎ-’ 동사로 번역되어 있고 번역된 횟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말 불교용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6) 가. 이제 阿難이 모미 窅하야 잇는 디 업스리로다(則今阿難이 身이 窅하야 無所在矣로다)
 〈楞嚴3:45a〉
 나. 부테 一切法을 니르시나 물가 상네 寂滅하시니 오직 부테 말 업스샤물 알면 어루 子期라
 닐을 디니라(佛說一切法 ㅎ시나 湛然常寂滅 ㅎ니 但信佛無言이면 可稱爲子期니라) 〈金三

15) 그러나 불경 언해에 쓰인 불교용어들도 우리말 체계에 수용된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불교용어의 우리말 정도화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각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4:35a)

- 다. 淨飯王이 相 勳 사름 五百을 大寶殿에 謁호아 太子를 毘더시니 모다 솔보되 出家호시면 成佛호시고 知의 겨시면 輪王이 득외시리로소이다(王召善相者五百人 於大寶殿令占太子 咸言出家成佛在家輪王) <釋詳3:1a>
- 라. 平等慈는 내 모매 平等호 므스므로 化호야 멸로 平等호 므스므로 施케 호니 바배 平等 호니는 法에 또 平等호씩 能히 無量 功德을 일우음 고디라(平等之慈는 於己에 等心而化 호야 使彼로 等心而施케 호니 於食에 等者는 於法에 亦等호씩 所以能成無量功德이라) <楞嚴1:33a>
- 마. 내 佛眼으로 三界엿 一切 諸法을 다 보니 無明스 根源이 性이 本來 解脫호야 十方에 求호 야도 곧 問 어드리로다 根源이 업순 轉으로 가지와 瞋과 다 解脫호며 無明이 解脫호 전으로 老死니르리다 解脫호니라(我以佛眼遍觀三界一切諸法 無明本際性本解脫 於十方求了不能得 根本無故 所因枝葉皆悉解脫 無明解脫故 乃至老死皆得解脫) <釋詳23:17a>

(16)에서 ‘空호-, 寂滅호-, 出家호-, 平等호-, 解脫호-’ 들이 불경 언해에서 쓰인 용례를 볼 수 있는데, ‘空호-’는 『능엄경언해』에만 25개, ‘寂滅호-’는 『원각경언해』에만 22개, ‘出家호-’는 『능엄경언해』에만 19개, ‘平等호-’는 『능엄경언해』에만 15개, ‘解脫호-’는 『능엄경언해』에만 16개가 사용될 정도로 불경 언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우리말 불교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나)의 ‘在家호-’의 경우는, (17)과 같이 『월일석보』, 『법화경언해』, 『육조법보단경언해』에 각각 1개씩의 용례를 가지고 있으나, 쓰인 용례들을 살펴보면 우리말 불교용어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17) 가. 藥王아 만히 사르미 在家키나 出家키나 菩薩道를 行호되 호다가 이 法華經을 보며 드르며 닐그며 외오며 써 디너 供養 ฆ호면 반드기 알라 이 사르미 菩薩道를 이대 行티 ฆ고 호다가 이 經典을 드르니사 菩薩道를 이대 行호미라(藥王아 多有人在家出家에 行菩薩道호되 若不能得見聞讀誦書持供養是法華經者는 當知是人은 未善行菩薩道ㅣ오 若有得聞是經典者ㅣ사 乃能善行菩薩之道ㅣ니라) <月釋15:51b>
- 나. 또 文殊師利여 菩薩摩訶薩이 後 末世 法 滅호려 호 쟈 이 法華經 디닐 사르민 在家키나 出家키나 사름 中에 大慈心을 내오 菩薩 아닌 사름 中엔 大悲心을 내야(又文殊師利여 菩薩摩訶薩이 於後末世法欲滅時에 有持是法華經者는 於在家出家人中엔 生大慈心호고) <法華5:51a>
- 다. 나 간 七十年에 두 菩薩이 東方으로서 와 호나호 出家호고 호나호 在家호야 호 띄 教化를 니르와다 내 宗을 세여 伽藍을 甞라 法 니소미 盛호리라(吾去七十年에 有二菩薩이 從東方來호야 一은 出家호고 一은 在家호야 同時興化호야 建立吾宗호야 締緝伽藍호야 昌隆法嗣호리라) <육조下67a-5>

- (18) 가. 善知識아 호다가 修行코져 호덴 知의 이셔도 또 得호 디라(師ㅣ 言호샤되 善知識아 若欲

修行인댄 在家^ㅎ야도 亦得이라 (육조상115a-6)

나. 또 묻즈오디 지비 이셔 엇테 修行^ㅎ리잇고(又問^ㅎ스오디 在家^ㅎ야 如何修行^ㅎ리잇고)
(육조상115b-2)

(17)과 (18)을 보면 모두 『육조법보단경언해』의 원문이 ‘在家’일 경우에도 (17다)에서는 ‘在家^ㅎ’로 언해되었고, (18가, 나)에서는 각각 ‘지비 이셔도, 지비 이셔’로 언해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在家^ㅎ’로 언해된 (17)의 예들은 모두 ‘在家^ㅎ’가 ‘出家^ㅎ’와 對句로 쓰인 문맥임을 알 수 있다. 한문 원문에서 ‘出家’와 對句로 쓰인 ‘在家’가 언해문에서 ‘在家^ㅎ’로 번역되고 있어 대구가 되는 ‘出家^ㅎ’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비록 불경 언해에 ‘在家^ㅎ’가 쓰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在家^ㅎ’가 우리말 불교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15가)와 (15나)는 우리말 불교용어의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임에 비하여 (15다)의 ‘演說^ㅎ’는 우리말 불교용어의 대상이 아니다.¹⁶⁾ 이는 구결에서 ‘演說^ㅎ’로 현토되었다 하더라도 불경 언해에서는 ‘演說^ㅎ’로 해석되지 않고, ‘펴 니르^ㅎ’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19) 가. 또 보스오디 諸佛聖主師子 | 經典이 微妙第一을 펴 니르샤디(又觀諸佛聖主師子 | 演說經典이 微妙第一^ㅎ샤디) (法華1:69)

나. 그피 부테 겨샤디 號 | 日月燈明如來 應供 正徧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土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이러시니 正法을 펴 니르샤디 初善 中善 後善이러시니(爾時에 有佛^ㅎ샤디 號 | 日月燈明如來應供正徧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土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이러시니 演說正法^ㅎ샤디 初善中善後善이러신 (法華1:89))

(19)를 보면 불경의 한문 원문이 ‘演說’인 경우에도 불경 언해에서는 ‘演說^ㅎ’가 아닌 ‘펴 니르^ㅎ’로 언해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구결에서 ‘演說^ㅎ’로 현토되었다고 하더라도 언해에서는 ‘演’과 ‘說’을 각각 따로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演說’을 우리말 불교용어로 볼 수는 없다.

IV. 결 론

지금까지 『한국한자어사전』의 불교용어를 향가, 이두, 구결 등 차자자료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6) ‘愛著^ㅎ’는 불경 언해에서 ‘愛着^ㅎ’로 번역되지만 용례가 적어서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아래에 ‘愛着^ㅎ’가 불경 언해에 쓰인 예를 제시한다.
相互妙德을 다 기리스오샤문 네 愛着^ㅎ던 거시 다 幻感인 들 기피 아르시니라(歷讚相好妙德者는 深悟昔所愛著이 皆幻感也 | 라) (法華7:148)

첫째, 신라나 고려시대의 향가, 이두, 구결 등 차자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들은 모두 『한국한자어사전』의 우리말 불교용어 보완 작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가나 이두는 우리말 표기를 위해 사용된 차자표기이므로 이들 자료에 사용된 불교용어는 우리말 불교용어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구결에 사용된 불교용어는 향가·이두에 사용된 불교용어와는 달리 이들을 모두 우리말 불교용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결에 사용된 불교용어는 이들이 우리말 불교용어인지 아닌지 여과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불경 언해에서 'NP ㅎ-'로 언해된 어휘를 우리말 불교용어로 판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주, 「보현행원품과 균여 향가」, 2011년 여름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 김성주, 「주본화엄경 권 제14의 현대역에 대하여」, 2013년 여름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 김성주, 「『東大寺 華嚴經』의 신라 구결과 고려 석독구결의 비교 연구」, 2015년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 김성주·박용식, 「영태2년명(永泰二年銘) 석비로자나불(石毘盧遮那佛) 조상기(造像記)에 대하여」, 『배달말』 56, 배달말학회, 2015.
- 김지오, 「均如傳 鄉歌의 解讀과 文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남풍현,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 造像記의 史讀文 考察」, 『新羅文化』 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8.
- 남풍현, 「신라(新羅) 화엄경(華嚴經) 사경(寫經) 조성기(造成記)의 해독(解讀)」, 『古文書研究』 2: 1, 한국고문서학회, 1992.
- 남풍현, 『史讀研究』 태학사, 2000.
- 박찬규, 「『한국한자어사전』에 수용된 이두·구결·차자어의 구성과 출전문헌」, 『東洋學』 5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 안정희, 「참회업장가」, 2010년 구결학회 월례발표회 발표요지, 2010.
- 이건식, 「『華嚴經傳記』 德圓傳과의 내용 비교를 통한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語彙의 해독 재고」, 『구결연구』 29, 구결학회, 2012.
- 이선이(태경), 「均如 향가에 나타난 澄觀의 영향」, 『普照思想』 34, 보조사상연구원, 2010.
- 池炯律, 칭찬여래가(稱讚如來歌), 『문학미디어』 15, 문학미디어사, 2009.

사전류 :

望月信亨 編, 『(望月)佛光大辭典(增訂版)』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67/1980.

佛光大辭典編修委員會 編, 『佛光大辭典』台北: 佛光出版社 1989.

李智冠 編著, 『(伽山)佛光大辭林』, 서울: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8.

- * 이 논문은 2016년 2월 26일에 투고되어,
2016년 3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3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4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On the Direction of the Enlargement of Buddhist Terms in *Sino-Korean Dictionary*

Kim, Seongju*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the supplementation of the Buddhist Terms in *Sino-Korean Dictionary* published in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n Dankook University. And the objects of this paper are Idu, Hyangga and Kugyol in Silla and Goryeo Dynasty.

The points of this paper as follows.

First, Hyangga and Idu are all the Chinese-loaned writing system. Kugyol, however, is not the writing system to write the Korean sentence but to easily interpret the Chinese sentences. Therefore, these two are quite different writing systems between them.

Second, the Buddhist Terms used in Hyangga and Idu are to be directly regarded as Korean Buddhist Terms but those used in Kugyol literature are not because they are essentially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ird, the Buddhist Terms used in Kugyol literature are not able to be regarded as the real Korean Buddhist Terms. It is basically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Buddhist Terms used in Hyangga and Idu. Therefore, the former should be necessary to filter the Korean Buddhist Terms from the general ones. Although how to filter the Korean Buddhist Terms from the general ones are several. It is, however, a possible method in which we can take advantage to the type of the verb NP+ha- translated in the Middle Korean Translation literatures. If the verbs of NP+ha used in Kugyol literature are used in the Middle Korean Translation literatures, we can regard them as the real Korean Buddhist Terms.

Lastly, I want to be argued that the Korean Buddhist Terms used in Silla and Goryeo period should be listed as the title words of the revised *Sino-Korean Dictionary*. It is because they are not a lot.

[Key Words] the revised *Sino-Korean Dictionary*, Korean Buddhist Terms, Hyangga, Idu, Kugyol

* Research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